



2018-06-17 21:56

## DMZ 남북 공동 조사·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추진

[이승윤 기자]

동영상 뉴스

[앵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사이에 훈풍이 불면서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00종이 넘는 멸종위기종이 사는 DMZ를 남북이 공동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쟁 이후 출입이 통제되며 야생동식물의 천국이 된 DMZ, 비무장지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생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립생태원 현장 조사원 : 멸종위기 2급인 표범장지뱀입니다.]

조사 결과, DMZ엔 약 6천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과, 2급인 담비, 새호리기, 열목어, 가는돌고기 등 DMZ에 사는 멸종위기종은 101종에 달합니다.

남한 면적의 2%도 되지 않는 곳에 남한 내 멸종위기종의 38%가 살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DMZ 생태 조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재개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맞춰 DMZ 남북 공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창완 /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장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속한 종들의 서식처와 생태를 연구하여 DMZ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생물보호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경기도 연천군도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DMZ의 평화적 활용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A17면 기업

## DMZ서 대한민국 IR

### KOTRA 외투기업 대상

KOTRA가 경기도와 함께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주한 외국인 초청 한국 홍보 행사인 '제25회 겐 투 노 코리아(Get to Know KORE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임직원 등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행사에는 솔베이코리아, 한국후지제록스 등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임직원, 외신 기자, 외교 사절과 가족 등 총 4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임진각 자유의다리를 견학한 후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을 체험한 뒤 경기도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우제윤 기자

전자신문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025면 인물



KOTRA는 경기도 파주 DMZ에서 주한 외국인 초청 한국 홍보 행사 '제25회 겐투노우코리아'를 개최했다. 행사 참석자가 DMZ 전시관 입구에서 기념촬영했다.

## KOTRA, 외국인투자기업 초청...한국 홍보 행사

KOTRA(사장 권평오)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도 파주 DMZ에서 주한 외국인 초청 한국 홍보 행사 '제25회 겐투노우코리아(Get to Know KOREA)'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등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행사다.

솔베이코리아, 한국후지제록스 등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 외신기자, 외교사절 및 가족 총 45명이 참가했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 견학 후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와 제3 땅굴을 체험하고 경기도 투자환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국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10년째를 맞는 겐투노우코리아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등 한국에 있는 주요 외국 인사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